



열상렌즈모듈 상품화 목표로 기술개발에 매진

열상광학시스템용 비구면렌즈 전문 업체 (주)프리시전옵텍스

열상광학시스템용 초정밀가공기술 분야에 주력해온 프리시전옵텍스(대표·한상현, www.p-optechs.com)는 군수분야에서만 활용도가 집중되어 있는 적외선카메라 기술을 민수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4년여 만에 자체 사옥을 마련하고 '제2의 창업'을 다짐한 이 회사는 올해 1차적 목표로 모듈상품을 선보이며 적외선카메라 시스템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일보 전진을 계획하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프리시전옵텍스 사옥 전경

전남 광주에 위치한 (주)프리시전옵텍스는 초정밀가공기술을 응용한 비구면 렌즈 및 반사경을 비롯한 정밀광학부품 전문 제조업체이다. 특히 열상광학시스템용 초정밀가공기술 분야에 주력해온 프리시전옵텍스는 그동안 군수산업 분야에서만 활용도가 집중되어 있는 적외선카메라 기술을 민수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그동안 보금자리였던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를 벗어나 광주시 북구 월출동에 자체 사옥을 마련, 초정밀가공장비와 측정장비를 들이면서 정밀광학부품 및 시스템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 1월 자체 사옥과
초정밀 가공 장비 · 측정 장비 구축**

프리시전옵텍스는 한상현 사장 등이 이오시스
템 소속으로 광주에 내려와 한국광기술원과 의
료용 열상카메라에 대한 과제를 진행한 것이 계
기가 되어 2003년 6월 설립한 회사이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열상광학시스템의 핵심 광학부
품인 비구면렌즈 및 반사경, 대물렌즈 등을 공
급한다. 당시 3명의 인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는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회사의 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시스템 인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시전옵텍스는 현재 국내외에서 군수산업을
비롯하여 보안, 기계·전자·건축 등의 산업,
의료,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열상광학시스템 분야의 핵심광학소자에서
시스템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력을 강화
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 이후
4년간 적외선카메라용 핵심광학부품의 광학 및
금속재료에 대한 비구면 형상 가공에 대한 공정
개발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작게는 $\phi 10\text{mm}$ 에서
 $\phi 200\text{mm}$ 의 대구경 반사경에 대한 가공기술에 이
르기까지 비구면 렌즈의 가공기술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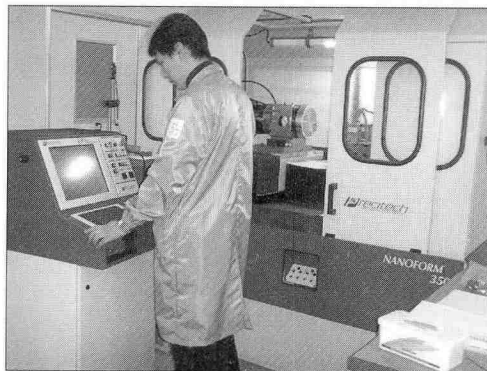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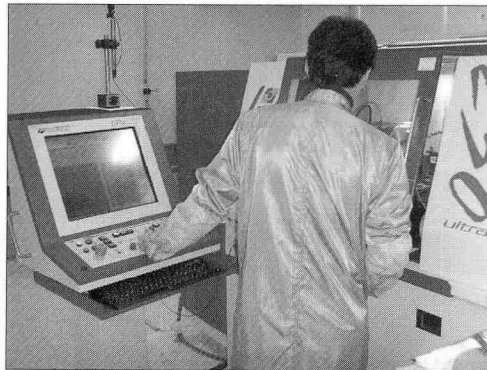
현재 적외선광학계를 이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몇 안 된다. 적외선카메라가 주
야간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
에 이제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에서 많이 쓰였고,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민수분야에 접목시
키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나마 해외
에서는 이 장비가 의료 및 소방 등 다양한 분야
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관련 업체들의 네임
벨류가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
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러나 프리시전옵텍스의 한상현 사장은 “우리
나라 기술로도 선진기술에 뒤지지 않는 열상광
학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
주겠다”며 “민수분야 중에서 의료, 소방, 보안
장비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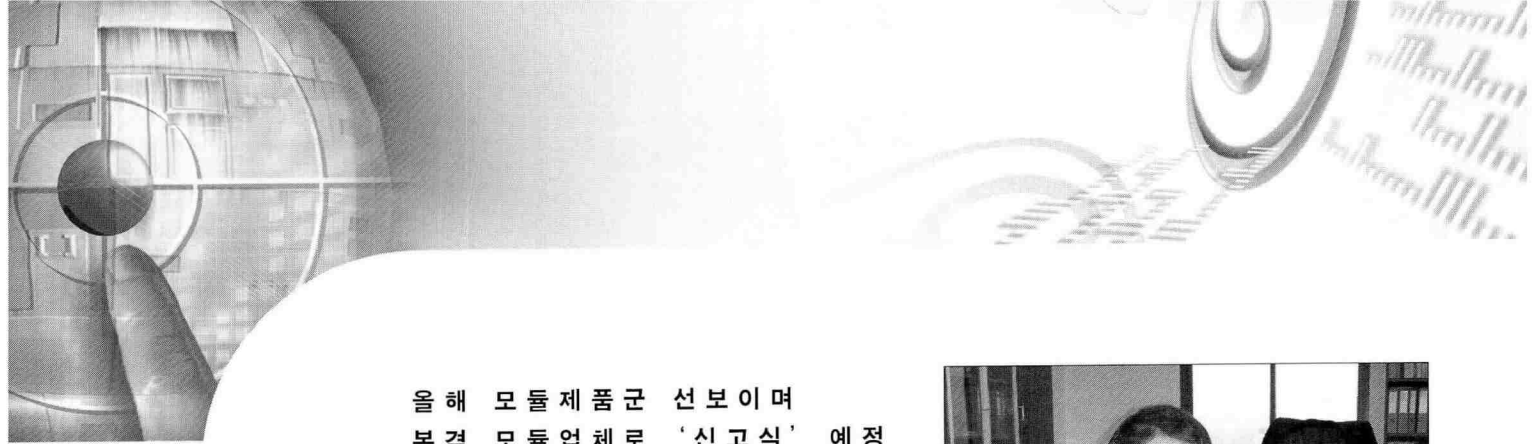
현재 프리시전옵텍스의 주납품처는 이오시스
템으로 적외선광학계에 들어가는 비구면 렌즈 단
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나 1차적인 목표는 모듈계
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올해 최소한 2~3개의
모듈을 상품화하여 올 하반기 또는 내년 광산업
관련 전시회에도 참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날 회사를 방문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김건희 박사
(사진 오른쪽)와 한상현 대표, 송국현 이사가 함께 기술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클린룸 안에 마련된 초정밀 가공장비와 측정장비를 통해 엔
지니어가 광학부품소자의 가공과 형상 측정을 하고 있다.



올해 모듈제품군 선보이며 본격 모듈업체로 '신고식' 예정

지난해 3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같은 해 12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는 프리시전옵틱스는 아직 매출을 논하기에 앞서 기초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 밝힌다. 한상현 사장은 “올해로 설립 4년째에 접어들지만 지금까지는 본격 열상광학시스템 사업을 위한 기초체력을 다진 기간이었고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초기술을 좀더 탄탄히 하여 각종 과제를 진행하고 모듈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적외선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형상 기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에서 의뢰를 해온다면 지금껏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살려 언제든지 성의껏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국내 업체들끼리는 경쟁자라기보다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커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상현 대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학세계'의 회원사동정 및 광학신상품 란은 회원사들의 홍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인사 및 행사, 회사 업적 소개, 변경 사항, 신상품 출시 등 홍보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전 화 : (02)3481-8931
- 팩 스 : (02)3481-8669
- 이메일 : pjy@koia.or.kr